

The effects of social stigma perceived
by out-of-school adolescents on smart phone addiction;
exploring the direction of activities through verification
of the mediated effect of ego-resilience

Han, Eun Su

School vice-commissioner, Gyeongsangbukdo Gyeongsan Office of Education

Background & Purpose: The study was conducted to verify how the mediating effect of ego-resilience has an effect on out-of-school youth perceived social stigma and it goes to smart phone addiction.

Methodology: For the research, the data was taken from the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which surveyed the Out-of-School Youth Panel in 2014, the second survey of the Youth Panel found mediating effect by using the structural equation.

Findings/Conclusions: First, the analysis on the average smart phone addiction out of school adolescents showed a high percentage for girls than boys. Second, the social stigma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influence on smart phone addiction. Third, ego-resilience showed partial mediation effect in relation between social stigma and smart phone addiction.

Implications: On the findings, in order to lessen smart phone addiction caused by the social stigma, we suggested that we should find different kinds of ways to improve ego-resilience and conduct follow-up researches.

Keywords: out-of-school adolescents, smartphone addiction, social stigma, ego-resilience

Corresponding Author: Han, Eun Su

School vice-commissioner, Gyeongsangbukdo Gyeongsan Office of Education

309-6, Wonhyo-ro, Gyeongsan-si, Gyeongsangbuk-do, Republic of Korea

ORCID: <http://orcid.org/0000-0002-0394-6892>

Email: es3han@gbe.kr

Received: May 31, 2021 Revised: June 28, 2021 Accepted: June 28, 2021 Publication: June 30, 2021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낙인감이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검증을 통한 활동 방향 탐색

한은수

경상북도경산교육지원청, 장학사

배경 및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학교 밖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낙인감과 스마트폰 중독간 경로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방법: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조사한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2차년도(2014년) 자료를 사용하였고, 구조방정식을 활용하여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결과/결론: 첫째, 남녀 청소년의 잠재평균을 분석한 결과 학업중단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은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학교 밖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낙인감이 스마트폰 중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자아탄력성은 사회적 낙인감과 스마트폰 중독의 관계에서 부분매개효과를 보였다.

시사점: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낙인감과 스마트폰 중독 간 경로에서 스마트폰 중독을 감소시키기 위해 매개변인인 자아탄력성 증진 방안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학교 밖 청소년, 사회적 낙인, 자아탄력성, 스마트폰 중독

교신저자: 한은수

경상북도경산교육지원청 장학사

경상북도 경산시 원효로 309-6 (갑제동, 경산교육청)

ORCID: <http://orcid.org/0000-0002-0394-6892>

Email: es3han@gbe.kr

투고일: 2021. 05. 31. **심사일:** 2021. 06. 28. **게재확정일:** 2021. 06. 28. **발행일:** 2021. 06. 30.

I. 서론

1990년대 이후 출생한 현재 청소년들은 ‘디지털 원주민(Digital Native)’이라 불리며 어릴때부터 디지털 환경에 노출된 세대이다[1]. 디지털 원주민 세대인 청소년들은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비대면 의사소통에 익숙한데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생활 모든 분야에서 비대면 서비스가 급속도로 진전되면서 청소년들의 스마트 기기 의존도를 더욱 높이고 있다.

2020년 우리나라 스마트폰 이용자 중 23.3%는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으로 전년 대비 3.3%p 증가하여 2013년 본 조사 시작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였으며 전 연령대에서 전반적으로 상승하였으나 특히 청소년층이 35%대로 가파르게 증가하였다[2].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급작스런 원격수업 전환과 방역수칙 준수를 위한 비대면 활동 강제로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스마트폰의 중독적 사용은 우울 및 공격성[3, 4, 5], 학교폭력[6]과의 높은 연관성이 보고되었다. 특히 학교 밖 청소년들이 일반 청소년에 비해 비교적 자유롭게 스마트폰 사용이 가능하고 이로 인해 스마트폰 과의존 발생 비율 역시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4].

학교 밖 청소년 수는 2019년 기준 약 39만 명으로 추산되고 2015년 이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7]. 우리나라는 법률로 학교 밖 청소년이란 1) 초등학교와 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2) 고등학교와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제적이나 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3) 고등학교와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다[8].

자기계발과 검정고시, 학교 부적응 등 다양한 이유로 학교 밖으로 나온 청소년들은 학업을 중단했다는 이유로 사회적 낙인감을 가지고 살아가며 다양한 부정적 정서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9, 10, 4, 5]. 3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에서 학업 중단 후 겪고 있는 어려움으로 선입견과 편견, 무시가 39.6%로 가장 높았다[11].

학교 밖 청소년이 지각하는 사회적 낙인감은 대면활동을 위축시키고 비대면 위주의 생활을 하게 되면서 학교 내 청소년들과는 달리 학교 밖 청소년들은 비교적 통제를 덜 받기 때문에 스마트폰 사용에 있어 자유로울 수 있다. 스마트폰이 제공하는 다양한 기능과 서비스를 통해 스스로의 미래를 탐색하고 지식을 쌓는 도구로 활용되기도 하지만 반대의 경우 사이버 비행 또는 음란물 접근 등의 경험과 동시에 과잉 사용 경향이 나타나면서 결국 스마트폰의 중독적 사용에 이르게 될 수 있다[5].

특히 스마트폰 사용은 휴대의 용이성과 SNS 사용 급증 등의 영향으로 청소년과 대학생에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스마트폰 중독에 더 취약한 것[12, 13, 14, 2]으로 나타나 성별에 따른 스마트폰 중독 양상이 다르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어 학교 밖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 개입을 위해서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학교 밖 청소년이 가지는 사회적 낙인감은 사회의 적응을 어렵게 하고 스트레스 요인으로 스마트폰의 중독적 사용을 야기하는 직접적인 위험 요인이며 학교 밖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에 있어 자아존중감이 부분적으로 매개하는 보호 요인으로써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5]. 최홍일과 정윤미[5]는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낙인감이 스마트폰 중독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었고 사회적 낙인감과 스마트폰 중독 간에 우울감을 간접경로로 투입후에는 우울이 완전매개 역할을 한다고 보고하였다.

선행연구들을 통해 자아탄력성이 스마트폰 중독의 보호변인임을 알 수 있으며[16, 17, 18],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낙인감이 스마트폰 중독으로 향하는 경로에서도 매개 역할을 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아탄력성은 변화하는 환경적 요구에 맞게 자신의 행동양식을 수정할 수 있는 역동적 능력[19]으로 자아탄력성이 높은 청소년의 경우에는 사회적 낙인감을 조절하고 스마트폰 사용에 있어서도 상황에 맞게 조절하는 능력이 뛰어나지만 자아탄력성이 낮은 청소년은 상황에 적응하는 능력이 떨어져 사회적 낙인감과 스마트폰 중독으로 인한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게 된다. 박소연과 유미숙[18]은 방임경험이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 스마트폰 의존을 경감시키고 예방할 수 있는 자아탄력성을 고취시키는 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략적으로 사용해야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자아탄력성이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낙인감과 스마트폰 중독 경로에서 매개변인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낙인감이 스마트폰 중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또한 스마트폰 중독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과 개입을 위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2.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낙인감은 스마트폰 중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3. 자아탄력성은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낙인감과 스마트폰 중독의 관계를 매개하는가?

II. 선행연구 분석

1. 스마트폰 중독

스마트폰 중독이란 스마트폰을 과다 사용하여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금단과 내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일상생활의 장애가 유발되는 것을 말한다[20].

중독 용어 사용은 부정적인 인식을 줄 수 있고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치유서비스 이용에 거부감을 조성할 수 있어 중독 용어가 가진 부정적인 어감은 줄여주는 대신 병리적 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유지시켜 주고 학계와 정부 정책이 지향하는 사용자 스스로 조절하며 사용하는 방향성과도 부합하기 위해 ‘중독’이라는 용어 대신 ‘과의존(over-Dependence)’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21]. 따라서 스마트폰 중독의 현황은 스마트폰과의존으로 짐작해볼 수 있다. 우리나라 스마트폰 이용자 중 23.3%는 스마트폰과의존 위험군이며 전년 대비 3.3%p 증가하여 2016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을 보였으며 특히 청소년의 경우 전년 대비 5.6%p 상승하여 전 연령대 중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2].

스마트폰의 중독적 사용은 우울 및 공격성을 높이며[3, 4, 5], 학교폭력[6], 정신건강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22]에 영향을 있다고 보고되었다. 또한 부모와의 애착관계에서 얻지 못한 친밀감과 유대감을 온라인 게임 등과 같은 외부로부터 보상받기 위해 스마트폰을 중독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부모와 애착이 불안정할수록 스마트폰 중독 위험성이 커지고[20], 스마트폰 중독 수준이 높을수록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13].

스마트폰 중독 수준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 선행연구에서는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에 비해 스마트폰에 더과의존적이며[2],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스마트폰 중독 경향성을 더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12, 13]. 반면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 수준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없다는 연구결과도 있다[20].

스마트폰은 일정관리, 정보검색, 구매, 학습, 여가, SNS 등 일상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스마트폰의 휴대성이 향상되고, 즉시성과 이동성이 강화되어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정보를 얻고 공유하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개인의 사고와 가치관뿐만 아니라 행동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23]. 인터넷 게임은 보통 남성 위주로 제작되어 남성이 더 흥미를 가지는 특성으로 인해 남성들이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24] 인터넷 게임 중독은 남자 청소년이 더 높은 편이었지만 타인과의 커뮤니케이션 기능이 뛰어난 스마트폰은 여자 청소년이 관계형성을 위해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다[13].

이상과 같이 청소년은 성별에 따라 스마트폰 사용 목적과 용도에 차이가 있어 스마트폰 중독 개입을 위해 스마트폰 중독 수준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학교 밖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학교 밖 청소년의 특수성을 고려한 스마트폰 중독 영향요인을 파악하여 예방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15].

2. 사회적 낙인과 자아탄력성, 스마트폰 중독의 관계

가. 사회적 낙인과 스마트폰 중독

학교 밖 청소년들은 문제아 또는 실패자라는 낙인과 함께 주변인들의 부정적 시선을 받고 있으며 사회적 낙인은 사회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정체성 형성기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있어 그 부정적 영향력은 특히 크다[25]. 문진영과 박주원, 이창문[26]은 이러한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낙인감을 일반 청소년이 아닌 평가 절하된 집단으로 인식하는 고정관념으로 인해 차별과 지위상실을 자신이 지각하는 정도라고 정의하였다.

고은정과 김병년[15]은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낙인감이 스마트폰의 중독적 사용을 야기하는 직접적인 위험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최홍일과 정윤미[5]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체감하는 사회적 낙인감의 수준이 높을수록 스마트폰 사용량도 함께 높아져 결국 스마트폰을 중독적으로 사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낙인감이 게임중독에 영향을 주는데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컴퓨터 보다는 스마트폰을 항상 소지하고 있는 특성과 함께 모바일 게임 광고 노출이 주된 이유라고 하였다[26]. 한편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낙인과 스마트폰 중독 간의 영향을 조사하는 연구에서 사회적 낙인감은 스마트폰 중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5, 15].

나. 사회적 낙인감과 자아탄력성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로부터 벗어나면서 문제아 또는 실패자라는 낙인과 소외감, 좌절감 등으로 인한 고통에 시달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9, 27], 검정고시나 자기계발 등의 이유로 학교 밖에 나왔지만 정규 학교에서 벗어났다는 이유로 사회와 또래 등으로부터 부정적인 낙인감을 경험한다.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낙인감은 우울[10, 28, 25], 자아존중감 감소[28], 삶의 만족도 감소[29], 진로장애[30]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탄력성은 어려움을 극복해나가는 개인의 심리적 특성을 나타내는 구성개념이다. 자아탄력성은 개인의 감정 수준을 조절하고, 변화하는 상황적 요구들에 대해 낙담하거나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경직되지 않고 유연하게 반응하는 능력이며[31], 정상적인 발달과 적응에 위협이 될 만한 위협에 노출되어 있음을 전제로 하였을 때, 위협요소에 노출되지 않은 비슷한 연령대의 사람들에게 사회가 기대하는 적응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32].

사회적 낙인감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심리적인 문제에 대해 자아탄력성은 보호요인으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주영과 우정희[28]는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낙인감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서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이 부분매개효과가 있다고 하였고, 이종남과 한상미, 김가희[25]는 학업중단 청소년의 사회적 낙인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탄력성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여 사회적 낙인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청소년의 자아탄력성 증진 방안을 제시하였다. 김진숙과 신혜숙, 문현주[33]는 시설보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사회적 낙인 수준이 높을 때 탄력성은 낮았다고 하였다.

다. 자아탄력성과 스마트폰 중독

학교 밖 청소년의 자아탄력성 수준은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친다. 김진영 등[34]은 스마트폰 중독군에서 정상군보다 낮은 자아탄력성을 보였다고 보고하면서 자아탄력성이 낮은 경우 충동 조절이 잘 되지 않고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이 미흡해 어려운 상황을 회피하게 되며 자신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가상세계로 빠져들 위험이 있어 스마트폰 중독을 야기할 수 있다고 하였다. 김은주[17]는 남자 중학생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과의존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규명한 결과 자아탄력성 수준이 낮을수록 스마트폰 과의존도가 높았다고 보고하였다. 구세희[16]는 자아탄력성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스마트폰 중독 경향성이 낮다고 하였으며, 정경아와 김봉환[35]은 남자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아탄력성은 스마트폰 중독에 부적 영향을 미쳐 청소년들이 스마트폰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아탄력성을 높일 수 있는 예방교육이 도움된다고 하였다.

자아탄력성이 매개변인으로 스마트폰 의존을 낮춘다는 연구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권오형과 문재우[14]는 자아탄력성이 휴대전화 의존도를 낮추고 부모의 긍정적 양육방식과 휴대전화 의존도 사이에서 매개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박소연과 유미숙[18]은 방임경험이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탄력성과 소외감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 스마트폰 의존을 경감시키고 예방할 수 있는 자아탄력성을 고취시키는 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략적으로 사용해야한다고 하였다.

이상을 종합해보면 자아탄력성은 스마트폰 중독의 보호요인으로 스마트폰 중독을 예방하고 회복하는데 영향을 미칠 것이라 추론할 수 있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5개년에 걸쳐 정규 학업 중단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중 진학, 복교 등의 탈락율과 구조방정식모형을 활용하는 연구에서 표본의 크기를 고려하여 2차년도(2014년) 자료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2차년도 연구대상자 599명 중 조사 당시 학업 중단 상태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 454명만을 대상으로 하였고, 복교나 검정고시로 인한 진학 등을 응답한 145명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분석 대상자 454명 중 남자 청소년은 275명, 여자 청소년은 179명이었다.

2. 분석 자료

가. 사회적 낙인감

본 척도는 2014년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2차년도 데이터의 조사항목으로, Harvey (2001)가 개발하고 주금옥(2002)이 번안한 뒤 배주미 등(2010)이 사용한 척도 중 학업중단 청소년의 사회적 낙인감에 적합한 5문항을 선정하여 사용하였다[36]. 리커트 4점 척도이며 문항은 “사회는 나를 부정적으로 본다” 등 부정적 질문 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낙인감의 체감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Cronbach's α 계수로 문항 간의 내적합치도(Inter-Item Consistency)를 추정한 결과는 .858이었다.

나. 자아탄력성

본 척도는 2014년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2차년도 데이터의 조사항목으로, 김지경 등 [37]이 한국 청소년 패널조사에서 사용한 자아탄력성 척도 문항 중 다섯 문항을 사용하였다. 리커트 4점 척도이며 문항은 “나는 갑자기 놀라는 일을 당해도 금방 괜찮아지고 그것을 잘 이겨낸다” 등 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Cronbach's α 계수로 문항 간의 내적합치도(Inter-Item Consistency)를 추정한 결과는 .724이었다.

다. 스마트폰 중독

본 척도는 2014년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2차년도 데이터의 조사항목으로, 스마트폰 중독 척도는 한국정보화진흥원(2012)의 스마트폰 중독척도 15문항 중 학업중단 청소년에게 적절한 문항을 선정[38]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4점 리커트 척도로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하여 계획한 일을 하기 어려워지,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지,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지 등에 대한 8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7번 ‘스마트폰 사용시간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는 역코딩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스마트폰 중독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Cronbach's α 계수로 문항 간의

내적합치도(Inter-Item Consistency)를 추정한 결과는 .825이었다.

3.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분석에 사용된 변인들의 특성을 파악 및 정규성 검증을 위한 기술분석 및 신뢰도 검증을 진행하였다. 분석에는 SPSS 18.0이 사용되었다. 이어서 AMOS 18.0을 이용하여 잠재평균분석을 통해 성별에 따른 스마트폰 중독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잠재변인 구성의 적절성을 검증하기 위한 확인적 요인분석과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경로분석을 실시하였고 경로분석을 통해 나타난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 확인을 위해 부트스트래핑을 진행하였다.

IV. 연구 결과

1. 측정변인 간의 기술 통계치 및 상관

주요 변수들의 기술 통계치와 통계적 모델 내 측정변인들에 대한 정규분포에 대한 가정을 검증한 결과는 <표 IV-1>과 같다.

통계 모델의 추정 방법 결정을 위해 다변인정규분포성 검증 절차를 통해 13개 측정변수들에 대한 다변인정규분포성을 검증한 결과, 변인별 왜도와 첨도 모두 정규분포 조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변인 정규분포성 가정 또한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최대우도추정(ML: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절차를 적용하여 모델의 부합도와 모수치를 추정하였다.

2. 남녀 청소년 집단에 대한 구인 동등성 비교와 잠재평균분석

학교 밖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에서 성별 차이를 잠재평균분석으로 검증을 실시하였다.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하는 방법으로 F검증이 주로 활용되고 있지만, 측정오차를 고려할 수 없기 때문에 결과자체에서 왜곡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39].

잠재평균분석을 위해 형태 및 측정 동일성, 절편동일성 성립이 순서대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표 IV-2>를 통해 모형별 각각의 적합도를 살펴보았다. 적합도 검증은 RMSEA, TLI, CFI 값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TLI와 CFI는 .90이상이면 적합도가 좋으며, RMSEA는 .08이하가 적절한 적합도라고 할 수 있다[40].

측정 동일성 모형은 기저모형에 내재된 모형이므로 두 모형의 자유도의 차이를 이용한 χ^2 값 차이($\Delta\chi^2$)를 통해 검증이 가능하다[39]. <표 IV-2>에 나타난 바와 같이 모든 잠재변수 간 상관

〈표 IV-1〉 측정변인간의 상호상관행렬 및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 사회적낙인감1	1												
2. 사회적낙인감2	.68**	1											
3. 사회적낙인감3	.52**	.55**	1										
4. 사회적낙인감4	.44**	.46**	.60**	1									
5. 사회적낙인감5	.59**	.50**	.53**	.61**	1								
6. 자아탄력성1	-.24**	.20**	-.20**	-.24**	-.23**	1							
7. 자아탄력성2	-.11*	-.18**	-.14**	-.14**	-.14**	.37**	1						
8. 자아탄력성3	-.30**	-.24**	-.22**	-.23**	-.24**	.41**	.36**	1					
9. 자아탄력성4	-.04	-.11*	-.05	-.20**	-.08	.23**	.43**	.17**	1				
10. 자아탄력성5	-.29**	-.21**	-.16**	-.24**	-.20**	.40**	.28**	.42**	.39**	1			
11. 스마트폰중독1	.19**	.19**	.23**	.17**	.15**	-.15**	-.18**	-.23**	-.08	-.67	1		
12. 스마트폰중독2	.21**	.20**	.18**	.16**	.16**	-.12**	-.20*	-.21**	-.11*	-.07	.77**	1	
13. 스마트폰중독3	.10*	.05	.06	.10*	.04	-.12**	-.12**	-.16**	-.10*	-.04	.42**	.51**	1
평균	2.13	2.04	2.05	1.85	2.01	2.76	2.91	2.56	2.95	2.71	5.15	4.53	4.39
표준편차	.69	.69	.75	.65	.74	.71	.78	.77	.74	.68	2.04	1.80	1.30
왜도	.18	.31	.17	.31	.49	-.64	-.38	-.08	-.31	-.05	.91	1.16	-.01
첨도	-.12	.24	.28	1.42	.18	1.64	-.23	-.35	-.22	-.22	.32	.68	-.09
N	454	454	454	454	454	454	454	454	454	454	454	454	454

* $p < .05$ ** $p < .01$

〈표 IV-2〉 동일성 검증에 대한 합치도 지수

Model	NPAR	DF	CMIN	NC	TLI	CFI	RMSEA
모형1: 형태동일성 (기저모형)	84	124	320.353	2.583	.882	.906	.059
모형2: 측정동일성	74	134	342.052	2.553	.884	.901	.059
모형3: 절편동일성	61	147	356.945	2.428	.894	.900	.056
모형4: 요인분산동일성	58	150	358.043	2.387	.897	.901	.055

관계를 허용한 모형 1의 적합도는 TLI가 좋은 적합도의 기준인 .90보다 낮았지만 CFI와 RMSEA 값이 만족할 수준으로 나타남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들의 성별에 따라 적재치를 동일하게 부여한 모형 2와 비교하였다. 그 결과 두 모형 간 χ^2 값의 차이는 유의하므로($\Delta\chi^2(10, N = 454) =$

21.699, $p < .05$) χ^2 값의 차이에 의한 측정 동일성은 기각되었다. 그러나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는데 있어 χ^2 검증과 마찬가지로 χ^2 차이 검증도 표본 크기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RMSEA와 TLI는 모형의 간명성도 고려하는 지수이므로 측정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의 지수가 기저모형의 지수에 비해 나빠지지 않으면 동일화 제약은 기각되지 않음을 의미한다[41]. 모형2는 모형1에 비해 TLI의 값은 조금 더 좋아지고($\Delta TLI = .002$), RMSEA의 값은 동일하여 측정동일성은 성립되었다. 이는 남녀 두 집단에서 측정 도구들이 동일한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모형 2와 모형 3의 적합도를 검증해 본 결과, 두 모형 간 χ^2 값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Delta\chi^2(13, N = 454) = 14.893, p > .05$). 따라서 절편 동일성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고 관찰된 평균 차는 잠재변인에 대한 집단 간 실제 차이를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교 밖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변인들의 평균값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여자 청소년 집단의 잠재평균을 0으로 고정한 후, 남자 청소년 집단의 잠재평균을 추정하여 두 집단 간 상대 값을 <표 IV-3>을 통해 살펴보았다. <표 IV-3>에서 제시된 Cohen의 효과크기를 산출할 때, 두 집단에서 산출된 잠재변인의 분산이 동일한 경우에 공통의 표준편차를 적용하기 때문에[39] <표 IV-2>에서 요인 분산 동일성 가정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였다. 모형 3과 모형 4의 적합도를 검증해 본 결과, 두 모형 간 χ^2 값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기 때문에($\Delta\chi^2(3, N = 302) = 1.098, p > .05$), 요인 분산 동일성이 확보되었다. 따라서 효과 크기 값은 공통의 표준편차를 사용하여 계산되었다.

<표 IV-3> 성별에 따른 잠재평균 차이 분석

잠재변수	여자 청소년	남자 청소년	공통의 표준오차	효과크기(d)
스마트폰 중독	0.00	-.453**	2.766	.164

** $p < .01$

잠재평균 분석 결과 스마트폰 중독에서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1$). Cohen[42]은 d값이 .2 이하면 작은 것으로, .5는 중간 수준, .8 이상이면 큰 것으로 해석하는, Cohen의 효과크기에 미루어 보았을 때, 스마트폰 중독은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에 비해 그다지 큰 차이는 아니지만 분명히 남녀 간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구조회귀모델의 부합도 및 모수치 추정결과

연구모델인 구조회귀모델의 모델추정가능성과 부합도를 검증하기 전에 2단계 모델추정가능성 확인절차[43]에 따라 최대우도 추정법에 의한 측정모델의 부합도를 추정된 결과는 <표 IV

〈표 IV-4〉 측정모델의 부합도

Model	NPAR	DF	CMIN	NC	TLI	SRMR	CFI	RMSEA(.083)	
								LO90	HI90
연구모델	42	62	253.668	4.091	.885	.052	.909	.072	.0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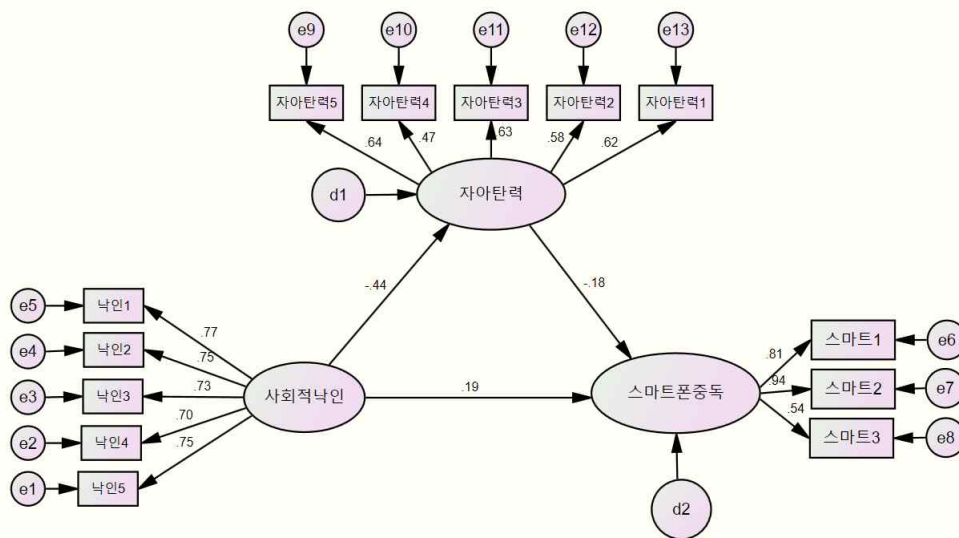
-4>와 같이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SEM(Structural Equation Model)연구의 부합도 분석결과 보고는 최소한 측정모델의 χ^2 값, Steiger-Lind의 90% 신뢰구간 RMSEA, CFI, TLI, 그리고 SRMR을 보고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43]. <표 IV-4>에서 보는 것과 같이, 부합도 지수 평가에서 측정모델의 RMSEA값이 .072 ~ .093인 것을 비롯하여 모든 부합도지수가 부합도 기준에 양호하게 부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수치들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는 <표 IV-5>와 같다.

〈표 IV-5〉 연구모델 통계적 유의성 검증

Parameter	Unstandardized	S.E.	C.R.	Standardized
사회적 낙인감→스마트폰 중독	.591	.191	3.102**	.190
사회적 낙인감→자아탄력성	-.396	.059	-6.752***	-.436
자아탄력성→스마트폰 중독	-.633	.228	-2.777**	-.184

** $p < .01$ *** $p < .001$



〔그림 IV-1〕 최종 분석모델 모수치 추정결과

<표 IV-5>에서 연구모델의 구조회귀모델 경로계수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다른 변인들 간의 관계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연구모델을 최종 분석모델로 모수치를 추정한 결과는 [그림 IV-1]과 같으며 구조모형에 포함된 변인들의 직접효과 및 간접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 IV-6>과 같다.

사회적 낙인감이 자아탄력성을 통해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총효과를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로 분해한 다음 간접효과 검증절차에 따라 부트스트래핑을 통해 유의도를 확인하였다.

<표 IV-6> 직·간접효과 분해 결과

경로	총효과(Standardized)	직접효과	간접효과
사회적 낙인감→스마트폰 중독	.270**	.190**	.080*
사회적 낙인감→자아탄력성	-.436**	-.436**	
자아탄력성→스마트폰 중독	-.184*	-.184*	

* $p < .05$ ** $p < .01$

사회적 낙인감이 스마트폰 중독($\beta=.190, p < .01$)과 자아탄력성($\beta=-.436, p < .01$)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직접효과가 있었고, 자아탄력성은 스마트폰 중독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인 직접효과($\beta=-.184, p < .05$)가 있었다. 또한 사회적 낙인감은 자아탄력성을 통해 스마트폰 중독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간접효과($\beta=.080, p < .05$)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아탄력성은 사회적 낙인감과 스마트폰 중독의 경로에서 부분매개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V. 논 의

본 연구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낙인감이 스마트폰의 중독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을 예방하고 개입하는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른 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녀 청소년의 잠재평균을 분석한 결과 학교 밖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은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보다 스마트폰 중독에 더 취약하다는 연구[14, 2]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여대생이 더 스마트폰 중독을 보였다는 연구결과[12, 13]와 맥락을 같이 한다.

남자 청소년이 인터넷 게임 위주의 활동으로 인터넷 중독이 높았던 반면 여자 청소년은 타인과의 커뮤니케이션 기능이 더 뛰어난 스마트폰을 통해 관계형성에 더 많이 사용하고[13], 스마트폰 중독에 성별로 차이가 있어 남자 청소년은 게임중독 가능성이 더 높고 여자 청소년은 스마트폰 과의존과 SNS 중독의 가능성이 높다는 선행연구 결과[44]를 고려해볼 때, 스마트폰 중독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난다면 개입하는 방법도 성별을 고려한 개입이 필요하다.

특히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보다 스마트폰 중독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SNS기반의 관계중심 활동을 주로 하는 여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개입이 필요하다.

둘째, 학교 밖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낙인감이 스마트폰 중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사회적 낙인감이 학교 밖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을 높이는 위험 요인임이 확인되었고 기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연구에서 사회적 낙인감이 스마트폰 중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5, 15]와 동일한 결과이다.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스마트폰의 중독적 사용은 우울 및 공격성[3, 4, 5], 학교폭력[6], 정신건강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22]를 가져온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므로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스마트폰 중독 예방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며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낙인감에 대한 개입이 함께 필요함을 의미한다.

학교 밖 청소년은 학업을 중단하였다는 이유로 일반 청소년이 겪지 않는 사회적 낙인감을 경험하게 되고 사회적 낙인감이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 밝혀짐에 따라 스마트폰 중독 문제에 접근할 때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사회적 낙인감이 주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학교 밖 청소년에게 사회적 낙인감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와 사회적인 배려도 필요하지만 개인 수준에서 사회적 낙인감을 가지지 않도록 지원할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고 있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에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교육훈련 지원, 자립지원 등을 하고 있는데 소극적인 성향의 학교 밖 청소년들은 이러한 서비스를 지원받기도 어렵다. 교육부와 지자체가 연계하여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을 사회안전망 속에서 사회적 낙인감을 갖지 않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인터넷 및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집단상담과 보호자에 대한 부모교육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과 연계하여 실시되고 있는데 보다 많은 학교 밖 청소년이 스마트폰 중독을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자아탄력성은 사회적 낙인감과 스마트폰 중독간의 관계에서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아탄력성이 스마트폰 중독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선행연구의 결과[16, 35, 34, 17]와 일치한다. 또한 자아탄력성이 매개변인으로 스마트폰 의존을 낮춘다는 연구 결과[14, 18]와도 일치한다. 자아탄력성은 매개변인으로 독립변인인 사회적 낙인감에 부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본 연구의 결과도 선행연구의 결과[33, 28, 25]와 일치한다.

자아탄력성은 감정 수준을 조절하고, 변화하는 상황적 요구와 스트레스 상황에서 유연하게 반응하는 능력이며[31], 학교 밖 청소년들이 일반 청소년들에게 사회가 기대하는 적응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32]. 따라서 자아탄력성은 학교 밖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을 감소시키는 보호요인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낙인감에서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감소시키고 스마트폰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개인을 보호하는 긍정적인 부분인 자아탄력성에 초점을 두고 이를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특히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 자아탄력성 향상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이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적응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울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본 연구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 대책을 수립하는데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 밖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은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들에서 확인한 스마트폰 중독에 있어 성별 간 잠재평균 차이가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결과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스마트폰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개입할 때 성별에 따른 접근 필요성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학교 밖 청소년이 낙인감을 느끼지 않도록 사회구조적 분위기가 형성될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학교 밖 청소년이 스스로 사회적 낙인감을 갖지 않도록 상담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스마트폰 예방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셋째, 자아탄력성이 사회적 낙인감과 스마트폰 중독 사이에 매개변인임을 확인하여 사회적 낙인감을 가지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에 있어 자아탄력성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인을 보호하는 자아탄력성 향상 프로그램을 통해 스마트폰 중독 예방 및 감소에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5년간의 종단연구 중 2차년도 자료만 대상으로 하였다. 보다 최신 자료인 3차년도 이후 자료는 진학과 복교 등으로 인한 폐널의 탈락률이 높아 본 연구에서 측정된 관측변수의 수를 고려했을 때 구조방정식모델로 측정가능한 표본 수를 충족하지 못하였다. 2차년도 자료가 2014년 조사자료이긴 하지만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구조방정식모델을 통해 잠재평균 비교와 매개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표본 수를 충족하고 있어 현재 학교 밖 청소년의 연구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

둘째,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 밖으로 나오게 된 이유가 검정고시 등으로 인한 대학진학, 자

기계발, 취업, 학교 부적응 등 다양하므로 스마트폰 중독과 사회적 낙인감에 대해서도 학교 밖으로 나오게 된 이유에 따라 나누어서 살펴본다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연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본 연구는 연구 참여자의 자기보고식 응답에 기초하고 있어 연구 참여자의 실제 상황과 달리 사회 통념상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응답을 하여 설문 결과가 응답자 반응에 의해 왜곡될 가능성을 내포하였다. 후속연구에서는 자기보고식 응답과 더불어 가족, 친구 등을 대상으로 인터뷰와 관찰 등을 병행하여 검증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1. Prensky, M. (2001). Digital natives, digital immigrants part 1. *On the Horizon*, 9(5), 1-6.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0). 2020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대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Ministry of Science and ICT,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2020). 2020 The survey on smartphone overdependence. Daegu.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3. 김현진, 박효정, 안해정 (2016). 스마트폰·인터넷 중독과 우울, 공격성, 사회적 관계, 학교폭력 경험 간의 다중집단 경로 분석. *교육학연구*, 54(1), 77-104. (Kim HJ, Park HJ, & Ahn HJ (2016). A Multi-Group Path Analysis among Smartphone-Internet Addiction, Depression, Aggression, Social Relationships, and School Violenc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54(1), 77-104.)
4. 이신애, 조명선 (2019). 학교 밖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에 미치는 영향요인. *한국학교지역보건교육학회지*, 20(3), 15-27. (Lee SA, Cho MS (2019). The Effect of Smartphone Overdependence among Out-of-school Youths in Korea.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School & Community Health Education*, 20(3), 15-27.)
5. 최홍일, 정윤미 (2020). 학교 밖 청소년들이 체감하는 사회적 낙인감이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우울의 매개효과 검증-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69(4), 31-58. (Choi HI, Jung YM (2020). The Mediating Effect of Depression on the Influence of Social Stigma of Out-of-school Youth on Smartphone Addiction: A Focus on Gender Differenc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69(4), 31-58.)
6. 윤자영, 채규만 (2014). 청소년 인터넷 게임중독 경향과 학교폭력인식의 관계: 현실지각 수준을 매개변인으로. *인지행동치료*, 14(3), 455-476. (Yoon JY, Chae KM (2014). The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 Internet Game Addiction Disposition and Recognition of School Violence. *Cognitive Behavior Therapy in Korea*, 14(3), 455-476.)
7. 허민숙 (2020).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현황과 개선과제(정책분석모델개발 보고서 2020-1). 서울: 국회입법조사처. (Hu MS (2020). Current Issues of Out-Of-School Youths Supporting Project and its Tasks for improvement(NARS 2020-1). Seoul.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8.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974호 (2021). (The Act 'Articl out-of-school Youths supporting initiative, Act No. 17974, 2021)
9. 김경준 (2010). 사회적 스티그마의 청소년에 대한 영향과 대응. *한국청소년연구*, 21(3), 5-31. (Kim KJ (2010). Coping Strategies for Reducing Social Stigma Associated with Youths' Thoughts,

- Feelings, Behavior, and Health. *Studies on Korean Youth*, 21(3), 5-31.)
10. 박동진, 김나연 (2019).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낙인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한국청소년활동연구*, 5(3), 71-87. (Park DJ, Kim NY (2019).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on the Effects of Social Stigma on Depression of Out-of-School Adolescents. *Studies on Korean Youth Activity*, 5(3), 71-87.)
 11. 여성가족부 (2018). 2018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서울: 여성가족부.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18). The survey on smartphone overdependence. Seoul.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12. 황경혜, 유양숙, 조옥희 (2012).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사용 정도에 따른 상지통증, 불안, 우울 및 대인관계.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2(10), 365-375. (Hwang KH, Yoo YS, Cho OH (2012). Smartphone Overuse and Upper Extremity Pain, Anxiety, Depression,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mo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2(10), 365-375.)
 13. 신선임 (2017). 스마트폰 중독 수준과 성별에 따른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자기조절학습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2(2), 173-189. (Shin SI (2017). Differences in Academic Self-Efficacy and Self-Regulated Learning according to Smartphone Addiction Levels and Gender.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22(2), 173-189.)
 14. 권오형, 문재우 (2018). 부모의 긍정적 양육방식이 휴대전화 의존도에 미치는 영향 -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와 성별 조절효과의 융합적 접근 -. *융합정보논문지*, 8(4), 145-152. (Kweon OH, Moon JW (2018). The Effect of Positive Parenting Attitude on Mobile Phone Dependency - A convergent approach to the Mediating Effects of Ego-Resiliency and Gender-Moderating effects -.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8(4), 145-152.)
 15. 고은정, 김병년 (2020).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낙인감이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7(12), 105-131. (Ko EJ, Kim BN (2020).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on the Effects of Social Stigma on Smart-Phone Addiction of Out-of School Adolescent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7(12), 105-131.)
 16. 구세희 (2014). 스마트폰의 애착형성요인과 중독경향성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서울. 중앙대학교 대학원. (Koo SH (2014). A Study on Attachment Factors and Addiction Tendency of the Smart Phone - The Mediating Effects of Ego-Resiliency. Doctoral Dissertation, Chung-Ang University, Seoul, Republic of Korea)
 17. 김은주 (2017). 융복합 시대의 남자 중학생 스마트폰 과의존 영향요인, *한국융합학회논문지*, 8(8), 177-183. (Kim EJ (2017). Factors Influencing the Smartphone Overdependence on Male Middle School Students in Era of Convergence.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8(8),

177-183.)

18. 박소연, 유미숙 (2019). 방임경험이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자아탄력성, 소외감의 매개효과. *재활치료과학*, 8(1), 27-39. (Park SY, Yoo MS (2019). Pathways From the Experiences of Neglect to Adolescent Smart Phone Dependency: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 Resilience and Alienation. *Therapeutic Science for Rehabilitation*, 8(1), 27-39.)
19. 박원주 (2011). 자아탄력성이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 인지적 정서조절과 긍정 및 부정정서의 매개효과.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서울. 연세대학교 대학원. (Park WJ (2011). The effect of the ego-resiliency on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problems: mediating effects of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and positive, negative emotion.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Republic of Korea)
20. 최선우, 김승현 (2015). 청소년의 부모와의 애착이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2(3), 365-383. (Choi SW, Kim SH (2015). Influence of Adolescent Attachment to Parents on Addiction to Smart phone : Mediation Effect brought in by Self-esteem. *THE Korea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12(3), 365-383.)
21. 신성만, 고영삼, 송용수, 오준성, 박명준 (2017). 인터넷 중독 용어 사용 및 대체 용어 개발을 위한 델파이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중독*, 2(2), 15-29. (Shin SM, Koh YS, Song YS, Oh JS, & Park MJ (2017). Delphi Analysis on the use of the term Internet addiction and development of an alternate term.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Addiction*, 2(2), 15-29.)
22. 김동일, 정여주, 이윤희, 강민철, 전호정 (2015).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16(4), 283-300. (Kim DI, Chung YJ, Lee YH, Kang MC, & Jeon HJ (2015). Effect of Smartphone Addiction on Psychological Problem by Mixed Regression Analysis.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16(4), 283-300.)
23. 양연지, 김기욱 (2020). Z세대와 밀레니얼세대의 스마트폰활용패턴에 따른 잠재프로파일분석. *소비자연구*, 31(4), 159-182. (Yang YJ, Kim KO (2020). Latent Profile Analysis of Smartphone Usage Patterns among Z Generation and Millennial Generation. *Journal of Consumer Studies*, 31(4), 159-182.)
24. Griffiths, M. D., & Hunt, N. (1995). Computer game playing in adolescence: Prevalence and demographic indicators. *Journal of Community & Applied Social Psychology*, 5(3), 189-193.
25. 이종남, 한상미, 김가희 (2020). 학업중단 청소년의 사회적 낙인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7(4), 97-117. (Lee JN, Han SM, Kim KH (2020). The Effects of Social Stigma on Depression among the School Dropout Youth: Focused on the moderation of Ego Resiliency.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7(4), 97-117.)
26. 문진영, 박주원, 이창문 (2020). 학교 밖 청소년의 게임중독과 사회적 낙인감에 관한 상호관

- 계 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18(1), 343-355.(Moon JY, Park JW, Lee CM (2020).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Game Addiction and Social Stigma of the Youth outside school.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8(1), 343-355.)
27. 명소연, 조진옥 (2016). 학교밖 청소년의 학교 이탈과 이후 삶의 도전과 성장에 관한 질적연구: 학교 밖 지원사업에 참여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상담연구, 24(2), 75-98. (Myung SY, Cho JO (2016). A Qualitative Study About The After School Separation of Out-Of-School Youths and Their Challenge and Growth of Life: Focusing on The Youths Who Participant Out-Of-School Youths Supporting Project. The Korea Journal of Youth Counseling, 24(2), 75-98.)
28. 박주영, 우정희 (2020). 학교 밖 청소년들의 사회적 낙인감과 우울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한국학교보건학회지, 33(2), 97-105. (Park JY, Woo CH (2020).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and Ego-resilienc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tigma and Depression in Out-of-school Adolescents. Korean Soc Sch Health, 33(2), 97-105.)
29. 반지윤, 이정민 (2021). 학교 밖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학대가 사회적 낙인감을 매개로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성별 다중집단분석 적용. 청소년학연구, 28(1), 341-366. (Ban JY, Lee JM (2021).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Stigma between of-School Youths' Perceived Parental Abuse and Their Life Satisfaction: An Application of Multiple-group Analysis across Gender.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8(1), 341-366.)
30. 박동진, 이지연 (2020).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낙인감과 진로장애의 관계에서 미래에 대한 생각의 매개효과. 한국청소년활동연구, 6(2), 1-26. (Park DJ, Lee JY(2020). A Study of the Mediating Effect of Thinking to Futur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tigma and Career Obstacle of Out-of-School Adolescents. Studies on Korean Youth Activity, 6(2), 1-26.)
31. Block, J. H., & Block, J. (1980). The role of ego-control and ego-resiliency in the organization of behavior. In W. A. Collins(Ed.), Minnesota symposium on child psychology.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32. Masten, A. S. (2001). Ordinary magic-resilience processes in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56(3), 227-238.
33. 김진숙, 신혜숙, 문현주 (2014) 시설보호 청소년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 사회적 낙인, 내면화된 수치심이 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 조절변수 용서를 중심으로-, 청소년시설환경, 12(3), 63-74. (Kim JS, Shin HS, Moon HJ (2014). The Effect of the Daily Hassles, Self-Esteem, Public Stigma and Internalized Shame to Resilience of Adolescence in Institutional Care. - Focused on the Moderating Effect of Forgiveness.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Youth Facility and Environment, 12(3), 63-74.)
34. 김진영, 김승곤, 김상훈, 박상학, 박 종 (2017). 청소년에서 주의력결핍과잉행동, 충동성, 자

한은수 /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낙인감이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검증을 통한 활동 방향 탐색

- 아타력성, 자존감이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생물치료정신의학, 23(3), 206-213.
(Kim JY, Kim SG, Kim SH, Park SH, & Park J (2017). The Effect of Attention-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Symptoms, Impulsivity, Ego-Resilience, Self-Esteem on Smartphone Addiction in Adolescent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Biological Therapies in Psychiatry, 23(3), 206-213.)
35. 정경아, 김봉환 (2014). 고등학교 남학생들의 자아탄력성이 스마트폰 사용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1(11), 55-74. (J KA, Kim BW (2014). The Effects of the Ego-Resilience on the Smart-phone use of the High School Student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1(11), 55-74.)
36. 윤철경, 서정아, 유성렬, 조아미 (2014).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연구보고 14-R19).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Yoon CK, Seo JA, Ryu SR, Jo AM (2014). A Longitudinal Survey and Support Plan for Dropping adolescent out of School (Research Report 14-R19). Sejong.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37. 김지경, 백혜정, 임희진, 이계오 (2010).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 I 사업보고서.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Kim JK, Paik HJ, Lim HJ, & Lee KO (2010). The Data of the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2010 I, Seoul.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38. 이창호, 김경희, 장상아 (2013). 스마트폰 확산에 따른 청소년보호방안 연구(연구보고 13-R08).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Lee CH, Kim KH, Jang SH (2013). A Study on Policy Measures to Protect Youths With The Spread of Smartphone(Research Report 13-R08). Sejong.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39. 김주환, 김민규, 홍세희 (2009). 구조방정식으로 논문쓰기. 서울: 커뮤니케이션. (Kim JH, Kim MK, Hong SH (2009). Writing a paper using a structural equation. Seoul. Communicationbooks.)
40. Bentler, P. M. (1990). Comparative fit indices in structural models. Psychological Bulletin, 107(2), 238-246.
41. 홍세희, 황매향, 이은설 (2005). 청소년용 여성 진로장벽 척도의 잠재평균분석. 교육심리연구, 19(4), 1159-1177. (Hong SH, Hwang MH, Lee ES (2005). Latent Means Analysis of the Career-Barrier Scale for Korean female adolescents.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19(4), 1159-1177.)
42. Cohen, J. (1988). Statistical Power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s (2nd ed.).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43. 문수백 (2009). 구조방정식모델링의 이해와 적용. 서울: 학지사. (Moon SB (2009). Basic Concepts and Applications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oul. Hakjisa.)
44. 경승구, 김진욱 (2019).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에 관한 연구: 스마트폰 과의존, 게임중독, SNS 중독 영향요인의 비교를 중심으로. 생명연구, 52, 179-200. (Kyoung SJ, Kim JW.

한국청소년활동연구, 제7권 제2호

(2019). A study on Smart-Phone Addiction in teenager. focused on Comparison Smart-Phone overdependence, game addiction, SNS addiction. Studies on Life and Culture, 52, 179-200.)